

한일미래포럼 보고서

제13회 한일미래포럼 참가자 이민석

저는 한일교류회를 이번 한일미래포럼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분들과 일본 분들이 대화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몰랐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토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자리이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일미래포럼을 참가하기 위해 자료조사를 하면서 한일 관계에 있어 충분히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주제이다 보니 어떠한 자료를 조사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제에 대해 각자 조사해온 내용을 발표하며 서로의 의견을 많이 공감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 또는 더욱 좋은 방법을 다 함께 제시하면서 어색한 분위기와 걱정은 사라져갔던 것 같습니다.



토론하면서 좋은 의견이 너무 많이 나와 한일미래포럼을 참가한 다른 조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으면서 좋은 의견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좋은 의견을 토대로 핵심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저녁을 늦게 먹거나 숙소로 돌아와 잔업을 하는 등 조원들이 많이 고생을 한 만큼 아



쉬운 마음도 컸지만, 한국분들과 일본 분들의 의견을 모아 발표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또한, 다른 조원들의 발표를 보면서도 내가 모르던 것과나 자신도 모르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시선들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발표준비를 하느라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마니또나 다른 조원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와 없었고 저 또한 노력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그래도 같은 조원들과 숙소에서 술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으며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다음에도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